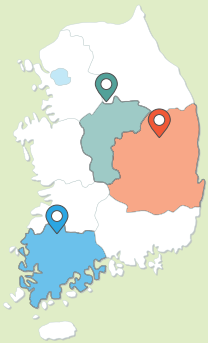
Migration Research & Training Centre
이민정책연구원
MRTC
Partner Organization of IOM

지역마다 필요한 이민정책은 같을까?

- 경북·충북·전남 데이터로 본 지역특성을 반영한 정주형 이민 설계 전략

인구감소와 산업 인력 부족에 대응해 지역 기반 이민정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마다 산업구조와 생활환경이 다른 만큼,
이민자가 정착하는 데 필요한 조건도 다릅니다.





이민정책은 '유입'을 넘어,
지역에서 살아가는 '정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주형 이민자는 늘었는데,
왜 지역 전략이 필요할까?

- 정주형 체류자는 빠르게 증가했지만,
지역에 정착하기 위한 조건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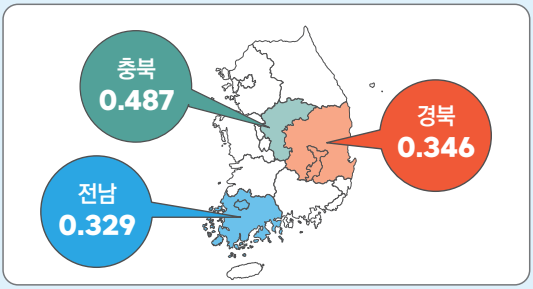
2011년부터 2025년까지 외국인의 체류 구조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정주형 체류자 약 3배 증가	33만 8,344명 (2011년) →	99만 5,781명 (2025년)
유학 등 체류자 약 3.1배 증가	10만 4,861명 (2011년) →	32만 6,298명 (2025년)
취업 체류자는 큰 변화 없음	58만 5,811명 (2011년) →	57만 4,659명 (2025년)

※ 자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각 연도(2011~2023) 「통계연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5년 12월 「지역별 외국인 현황」

왜 경북·충북·전남을 비교했을까?

비수도권에서도 지방소멸 위험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충북은 소멸위험이 상대적으로 낮고, 경북·전남은 높은 지역으로
서로 다른 지역 여건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3월 기준. 지수가 낮을수록 지방소멸 위험이 큽니다.

같은 비수도권이라도 지역 여건이 다른 만큼, 정주 전략도 달라야 합니다.

이민자의 정주를
왜 '공간'으로 분석했을까?

- 거주지와 일자리, 생활 인프라의 연결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연구에서는 경북·충북·전남의 10개 시·군을 선정해
이민자의 거주지와 산업·생활 인프라 분포를 분석했습니다.

선정 기준	경북	충북	전남
외국인주민 비율이 높은 지역	영천	청주	영암
외국인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지역	상주	제천	고흥
농어업 인력 수요가 높은 지역	김천	보은 · 영동	완도

함께 살펴본 정보

외국인 분포	출신국 · 연령 · 체류자격 · 체류기간
산업 분포	공장 · 산업시설
생활 인프라	교육 · 의료 · 복지 · 교통 · 상업시설

정주는 거주지 주변의 일자리와 생활 기반에 영향을 받습니다.

지역마다 이민자의 생활공간은 어떻게 달랐을까?

- 산업구조와 체류자격, 체류기간에 따라 이민자의 생활공간도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경북

광역 특징

- 취업형 외국인의 거주지가 공장·산업단지 분포와 대체로 일치
- 연령, 체류기간에 따라 차이 보임

대표사례_ 김천

- 동남아시아 출신은 산업단지, 중국 출신은 도심, 유학생은 대학 인근에 분포

충북

광역 특징

- 서부권에 밀집, 공장·산업단지 분포와 대체로 일치
- 지역별 생활 인프라 격차 큼

대표사례_ 청주

- F-4 체류자·취업자·유학생의 거주 분포가 서로 다름

전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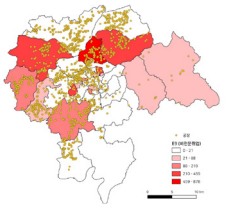
광역 특징

- 취업형 이민 비율이 매우 높음
- 제조업-어업·양식업 연계 거주 패턴 뚜렷

대표사례_ 고흥

- 취업형 외국인 약 80%
- 제조업 종사자는 내륙, 어업 종사자는 해안에 분포

같은 비수도권이라도 산업구조와 체류유형에 따라 생활공간이 다르게 형성되며, 이민자 집단 간 공간적 분리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청주 E-9 외국인은 공장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거주해, 일자리와 거주공간의 연계가 나타납니다.

경북·충북·전남, 정주의 조건은 어떻게 달랐을까?

- 지역의 이민자 구성과 생활 여건에 따라 중요한 정주 조건도 달랐습니다.

경북

이민자 특성

- 남성 **64.0%**, 20·30대 **78.3%**
- 비전문취업(E-9) **30.5%**
- 5년 이상 장기체류자 **44.2%**

정주 의사

- 고용이 안정적인 집단에서 높음
- 시 지역보다 군 지역에서 높음

주요 정주 조건

- 고용 안정성 • 개인·가구소득
- 지역소속감

충북

이민자 특성

- 남성 **63.3%**, 30대 **47.3%**
- 대졸 이상 **55.8%**
- 정주형 체류자격 소지자 **47.3%**

정주 의사

- 여성·고령층에서 높음
- 시 지역이 군 지역보다 높음

주요 정주 조건

- 취업 여부 • 가구소득
- 생활 인프라

전남

이민자 특성

- 남성 **69.1%**, 20·30대 약 **80%**
- 비전문취업(E-9) 비중이 높음
  - 단순노무 종사자 **53.3%**
- 2년 미만 단기체류자 **36.6%**

정주 의사

- 세 지역 중 가장 낮음
- 시 지역보다 군 지역에서 높음

주요 정주 조건

- 개인·가구소득 • 한국어 능력
- 주거환경 만족도

경제적 요인 외에 정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① 한국어 능력의 영향은 지역마다 달랐습니다.
한국어 등급이 높은 경우 비수도권 정주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걸로 나타나 한국어 심화교육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환경도 중요합니다.
가족 동거 집단의 정주 의사가 높게 나타나, 주거·교육·의료 등 가족 생활 인프라가 중요합니다.

경제적 조건뿐 아니라 언어·가족·생활환경도 정주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민자가 지역에 남게 하는 공통 조건은 무엇일까?

- 정주 의사에는 경제적 안정과 생활환경, 지역사회 경험이 함께 작용했습니다.

세 지역을 통합한 결과, 정주 의사에는 여섯 가지 요인이 함께 작용했습니다.

통합 분석 결과

인구·체류 요인

연령이 높고 체류자격이 안정적일수록 정주 의사가 높음

경제적 요인

고용이 안정적이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정주 의사가 높음

공간적 요인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의 정주의사가 상대적으로 높음

심리적 요인

지역소속감과 주거환경 만족도가 정주에 영향

사회적 요인

지원기관 이용 경험이 정주에 긍정적으로 작용

언어 요인

통합 분석에서는 한국어 능력과 정주 의사가 부적 관계

눈여겨볼 결과

- 인구감소지역의 주거·통합 지원을 통한 가족 단위 정착 유도
- 초기 한국어교육과 정주 이후 고급 한국어교육 연계

"지역 정주에는 경제적 안정뿐 아니라 생활환경과 지역사회 경험도 함께 작용합니다."

지역의 조건이 다르면,
어떤 정주 전략이 필요할까?

- 지역의 산업과 인재, 생활환경을 연결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합니다.

경북·충북·전남은 산업구조와 생활환경, 이민자 구성이 서로 달라
정주를 지원하는 방식도 지역별로 다르게 설계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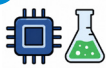
지역별 정주 전략

경북



- 숙련·전문인력으로의 전환, 지역대학과 주력 산업 연계
- 인구감소지역 선택·집중

충북



- 신산업(반도체·바이오·모빌리티) 전문인력 연계 및 양질의 일자리 제공
- 군 지역 생활 인프라 보완

전남



- 단계별 일자리 연계와 비자 전환·장기 정착 지원
- 조선업·농수산업 일자리 연계

정주를 위한 공통 정책 방향



일자리 연결

지역산업 수요와 이민자 기술·경력 연결



생활환경 개선

주거·교통·교육·의료 기반 보완



지역사회 참여와 포용성

주민과 이민자의 교류, 차별 없는 참여 확대



지원체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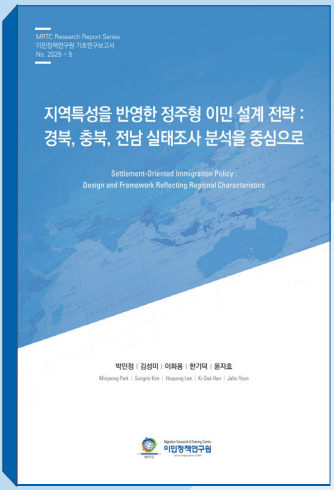
비자·취업·생활 상담 연계, 찾아가는 서비스

인력을 '유입'하는 정책에서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머물게' 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자세한 연구내용은 이민정책연구원 홈페이지 https://www.mrtc.re.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 발간물 ➔ 연구보고서



No.2025-05

이민정책연구원 기초연구보고서

지역특성을 반영한 정주형 이민 설계 전략 : 경북, 충북, 전남 실태조사 분석을 중심으로

박민정 | 김성미 | 이화용 | 한기덕 | 윤자호

=



이민정책연구원
https://www.mrtc.re.kr/data/01.php

최신연구자료 열람 | 정책자료 확인 | 통계자료 이용 | 연구성과 검색

카드뉴스 기획 및 제작 기획관리팀(02-3788-8020, 8012)